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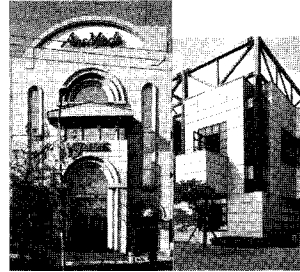
문화기획 '부동산 자본주의'에서의 건축

로데오거리의 유혹, '길찾기'

오늘날의 건축은 더이상 shelter로서 작용하지 않은 않는다. 아니 오늘날의 건축은 비와 우박과 사나운 집중으로 부터 보호 받기위한 인간의 shelter라기 보다는 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투자와, 급변하는 경제상황으로 부터의 shelter로서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건축과 자본의 밀착은 건축이라는 예술의 핵심적 대자본가와와의 필연적이고 오히려,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그 결합의 고리란, 한편으로는 강화되고(산업혁명) 다른 한편으로는 약화되어(후진국) 한 면에서는 강화의 형식을 띠고 다른 면에서는 약화의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건축은 다른 예술 장르와는 달리 예술적인 측면과 산업경제적인 투자가 측면을 아울러 한가지 더도 덜도 없이 자신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추상적인 질료인 공간을 매개로 하는 가장 순수한 예술인 동시에 자본의 논리에 가장 충실해야 하는 가장 오염된(?) 예술이다. 건축의 표현의식은 종종 자본의 논리에 의해 많은 제약받고 특히 강기건의 근부두체 체제하에서 발견되는 한국의 부동산 자본주의는 더욱 그러한 제약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한 부동산 자본주의하에서의 건축은 자연의 예술적 가치 보다는 건축물에 투자가서 얻어지는 자본의 부

가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밀착하면 앞서 말한 건축예술의 두 가지 측면중에서 산업경제적인 측면이 예술적 측면을 잠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덕적·위법적인 정직성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중요한 전락적 특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건축의 예술적 탐구 조차도 건축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주의의 방식에 따르고 있다. 이는 것은 건축예술의 사용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반성이 요구되는 지점이랄 수 있을 것이다. 80년 초반부터 강남의 압구정동 일대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마치 포스트 모던 건축의 실험장을 방불케 했던 로데오 거리의 건축의 조형적 탐구가 어떻게 자본의 부가가치에 얽매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본보기다. 계획 경제를 향배의 소규모 상업 자본가들은 빠른 시일내에 자



건축과 자본의 결합 환경예술 오염 자연-건물-인간 소통통로 마련해야

건축과 자본의 결합 환경예술 오염 자연-건물-인간 소통통로 마련해야

신들이 투자한 만큼의 이익을 얻길 원했고 그러한 것들을 가장 자극적이고 세련된 이 또한 문화적 수반에서 이의 고풍한 것이 보다는 건축물에 투자가서 얻어지는 자본의 부

민예총, 사단법인으로 체제 개편 남북교류확대...민중의 삶 반영

단체로도 별도로 법인화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예술 교류를 위해서 민예총은 일제 잔재 청산, 평화 정착 환경 보존, 94년 동학 1백주년 기념, 95년 해방 50주년 행사 등을 주제로 남북·북·해외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창작과 행사를 계획 중이다. 문호근 총인예총위원장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교류는 체제 차이와 무관한 순수 친목에 한정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남북교류와 삶의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9년 12월 창립된 민예총은 해마다 봄에는 '자, 우리 손을 잡자', 가을에는 '노래꽃' '꽃바다'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해왔으며, 92년 3월부터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아카데미를 개설해 왔다. (김중석 기자)



김민기씨 22년만에 음반 출반 '침구'를 자신의 목소리로 담아 김민기씨의 노래가 4장의 앨범으로 출반되었다(서울음반)

전시화정적으로 인하여 모든 정치상황이 점차로 소등되어 가는 때에 유독 건축은 더욱 그 환부가 확산되어 나갔다. 신군부의 등장에서 부터 지금 까지 80~90년 초의 한국의 건축은 한마디로 포퓰러의 건축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포퓰러이란 재정 리사이 시절 짜르가 지낸 김다다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상을 예복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의 일면만 있는, 마치 가시밭에 갇힌 닭 조 도시를 말한다. 그런 종류의 것들은 역사가 유언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서우게 마련이다. 마치 2만년 후 유적 발굴의 출토품이 아니라, 포퓰러의 정면에서도 대역어인 화살등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가?

백의 미로에서 헤매고 있다. 때때로 정면의 에스칼레이터는 그 객들에게 매달린 줄과 많은 상품들을 둘러 보게 하기 위한 병행된 미로이다. 롯데백의 출입문은 하나의 구멍이다. 우리는 그 구멍을 통해 '잠시의 이동'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환상처럼 처리된 화려한 상품들과 안전한 쇼핑을 위한 하나의 기구를 사이에서, 자본의 매혹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해 그 미로에서 헤매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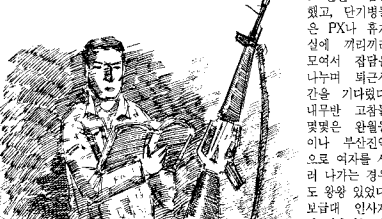
포퓰러의 도시화와 미로의 건물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모든 지구인들의 것들을 버리고 그 두가지한 속도에 반한 계층에 도달한 정신이다. 문체는 소외의 방식이다. 인간-건축-자연의 괴리를 해소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회로 내적인 정보와 의사 소통의 필요성과 소외를 해소. 그것들이 서로 간섭하고 침투하여 이루어 가는 도시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현대산업사회의 맹종수 없는 속도(이때 이 속도는 가속되어 나타나고 있는 도처의 맹종수 없다)의 불변행의 흐름을 느낀 그힘으로 자기의 흐름과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합성호 (시인, 건축평론가)

연재소설 水菊 필 하루 (4)

글:김도형 (국문·4) 그림:김진수 (미교·3)

한 번은 불친한 교대를 하는데, 초보 근무자인 최상범이 소용과 타미는 제지리에 놓은 채 군복을 벗지 않고 불투명도 그대로 신고 있었다. 아무래도 불투명도 느낌이 들었다. 저녁 휴식시간에 내무반장이 뜬금없이 그의 장거리 오리발을 신고 보였고, 유이병 -그때는 자매에 떨어지지 한 달밖에 안되어 있던 것들, 나는 잘 기억하고 있던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최상범은 2내무반 고트러미에서 끈이 지고 있는 유이병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잠을 잘 유이병은 긴장한 표정으로 최상범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내 무반으로 돌아온 유이병은 소리가 모로 모로 울어 갔다. 나는 머리 끝까지 모를 뒤집어 썼다. 계급 등 시도를 했지만 모포가 위 아래로 조곤조곤 흔들리는 것이 눈에

바리 너댓 마리만 빌마에 담 나도못 말릴 중을 신나게 휘젓고 다녔다. 분하기가 이만큼, 사무실에 하나 둘씩 열여섯 일명 이호봉 꺼리가 시집받지 채 끝나지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이병의 존재가 내무반에 뚜렷하게 새겨진 것은, 그의 일이 정면, 신고식 연설이었다. 신발이 오면 근무태양에게 정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연설을 펼칠 때 거칠게는 폭력기 기해졌다. 담담한 사무체 바로

유이병 바로 열자리의 동기가 동기 선인인 리로 먼저 당했는데, 그의 머리 위로 벌어진 각목이 그만 무리지고 말았다. 유이병 차례가 되어서 M16소총으로 가슴팍을 휘갈겼는데, 그는 그만 동기 선인의 린동 성명을 대고 말았다. 고장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주먹을 날리는 린동 성명을 대야 하는데, 유이병은 어이없게도 남의 린동성명을 던진 것이다. 당사자가 오죽 겁을 질면 어이없게도 그랬을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성한 실현정신이 시들어 있으면, 연출자 이유에게는 이 작품용 장르상 '반형(反形)의 연극'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3월26일~4월1일 공연장:국립극장 대극장(271-1741)

무기수 신영복씨 '염서' 출간 사색의 편린 잊을 수 있어 '강목으로부터의 사색'을 펴낸 신영복씨의 또다른 글공저사 '염서'가 출간되었다. 염서는 통일혁명 사상 무기수 신영복씨의 20년간 육종 생활 기록으로 육종에서 쓴 사색노트와 가족들께 따른 열

서, 살화들의 열연본이다. '강목'은 '에서 빠진 20대의 고려와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은 육종교도소 수감 당시 하루 두통씩 지극한 유지였다. 깨달음이 바뀐 사색노트 등 모든 글이 인쇄물자가 아닌 유필로 기록되어 있다. 저자 신영복씨는 68년 통일당 사건으로 구속,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20년 20일을 복역하고 88년 12월, 현재 대학에서 정치철학, 한국사상사를 강의하고 있다. (도서관출판사)

진보적 예술인들의 결합체 한국민중예술인총연합회(중총)가 22일 93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중예술의 건립, △동학 1백주년 기념사업, △사단법인화 추진, △남북 예술 교류 등이다.

4월 1일부터 10일간 발행

당신의 아침이 바뀝니다.

겨레의 정론지 동아일보가 창간73주년을 맞아 4월 1일부터 조간신문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동아만의 날카로운 필치로 독자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전해드릴 새 조간신문— 동아일보. 이제 당신의 아침이 바뀝니다.

